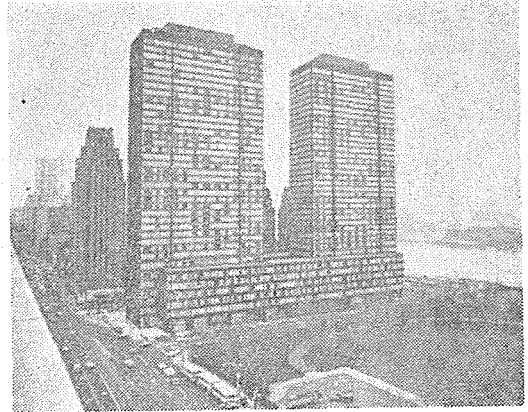


# 현대 생활

TIME, April 25, 1969



**UN광장의 쌍둥이 탑** UN광장에 있는 이 건물은 UN본부로 가는 길 건너편에 있는 만하탄과 이스트 강 위에 솟아 있다. 이 건물 안에는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작가 Capote, TV 프로듀서 Susskind, 배우 Robertson, 디자이너 Cashin이 있고 또 로버트 케네디도 임시 사무실로 14층에 6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국무장관 윌리엄 로저어스도 워싱턴의 그의 임무 때문에 부득이 유엔 광장을 떠나게 됨을 못내 섭섭히 생각했었다. 입주할 만한 돈에 여유가 있는 366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UN광장의 쌍둥이 탑은 만하탄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제공해 준다. 바람이 불어 연기 섞인 안개를 걷어치울 때 거대한 창문 뒤로 바다 보면 북으로는 Westchester County, 남으로는 뉴요크 항구, 항구 너머로 저 멀리 확트인 대양, 동으로는 케네디 공항, 서로는 뉴저지 벼랑을 전망할 수 있다. 아파트의 방값은 1개월 유지비 2,000달러를 포함해서 75,000달러에서 275,000달러까지 있다. 그런데 이 UN광장 아파트는 아주 이윤이 높은 투자가 된다. 칩대 세계의 칩대방의 비용이 1966년에는 65,000달러였는데 2년 후에는 155,000달러로 매매되어 140%의 이윤을 보게되었다.

**서어비스** 입주자들에 대한 서어비스는 아주 훌륭하여 침부름꾼, 재봉사, 요리조리사 등이 언제든지 부르면 오게되어 있고 여섯 명의 유니폼을 입은 안전경비원이 빌딩의 입구나 복도를 순찰하면서 도둑이나 소란을 피우는 자를 감시한다.

각 건물에는 입주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7층에 자녀들만이 많이 이용하는 방이 있으며 또 은행, 음식점, 놀이터, 증권거래소가 있고 의사, 치과의사 및 법률 사무소가 있다.

**실내장식** UN 광장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주로 돈이다. 돈을 드려서 실내장식을

하는데도 입주자들의 취미가 다양각색임을 엿볼 수 있다. 어느 수출업자의 부부는 방의 벽을 완전히 진한 초록빛 버어몬트 대리석으로 덮어버려서 그들의 아파트는 마치 진귀한 묘지와 같은 분위기를 이루고 있으며 작가 Capote의 아파트방은 마치 딸기와 같은 붉은 빛의 식당방을 만들어 놓고 아편이란 표지가 붉은 핑크색 중국 항아리를 전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크린 케네디여사가 새집에 이사온 축하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다. 30층에 사는 Simon씨의 부인은 그녀자신 원자 예술가라 자칭하면서 원래 있던 내부의 벽과 바닥을 모조리 벗겨서 6개의 방을 3개의 방으로 바꾸어서 만하탄 하늘에 떠있는 공간의 인상을 주었다. 또 어느 은퇴한 강철회사 간부의 부인은 칩실을 일본의 8월의 차집을 연상하게 꾸며 놓고 매일 일본의 차의 의식을 경건하게 지내며 자신을 선(禪)을 수련하는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다.

응시 옛날 속담에 있듯이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목석이 될 수 없다. 이웃을 넘겨다 보는 것은 UN광장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소일거리가 되었다. 결체에 사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길 건너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아마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불평을 한다. 아마 옳은 말인 것 같다. Simon씨는 어느날 저녁 이웃 건물의 옥상에 있는 식당의 카테일 연회가 끝난 후 자기 칩실의 굉장한 광경을 그 식당에서 볼 수 있음을 우연히 발견했다. 다른 UN광장 입주자들은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햇빛이 그들의 눈을 상하게 한다고 불평을 털어놓으며 어떤 입주자는 실내에서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은 밖을 내다 보느라고 모두 서서 있으니 심각한 일이라고 불평한다. 어느 부인은 샤워하러 벌거 벗고 걸어가서 창문을 내다보면 유리창 닦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 보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